

### 고창군



#### 귀농·귀촌, 살아보고... 제빵 교육도

‘세계유산도시’ 전북 고창군은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센터는 매년 30세대를 모집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다. 체류민들은 텃밭과 공동 하우스에서 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받는다.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영농 정착금과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귀농해서 창업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 1%를 3년간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제도) 해준다. 귀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또 멘토 컨설팅, 마을 환경화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 화합을 돕는다. 귀농인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과제빵 실용교육도 해준다. 이현승 기자

### 신안군



#### 갯벌 유네스코 등재 3주년, 국제교류 활발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03년부터 18년 동안 신안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1100.86km<sup>2</sup> 면적의 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내 갯벌 전체 면적의 85%에 해당한다.

신안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고된 특이퇴적체인 모래·자갈 선형체, 세계에서 가장 깊은 40m 깊이의 필퇴적층,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가 높게 평가했다.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알리기 위한 국제 교류 협력도 진행했다. 갯벌 중에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2009년 등재된 바덴해(Wadden Sea) 갯벌 공동사무국과 최근 협력을 논의했다. 바덴해 갯벌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3국에 걸쳐 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조간대 생태계 중 하나다. 김양혁 기자

### 경산시



#### 뉴브랜드 ‘My universe Gyeongsan’ 선포

경북 경산시는 지난해 4월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시민 인식조사,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쳤고,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견을 반영해 ‘마이 유니버스, 경산’을 최종 선정했다.

새 도시 브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사용해 온 ‘투게더 경산’을 대체한다. 마이 유니버스, 경산은 더 풍성해질 시민들의 터전이자 세계가 될 경산의 비전을 나타낸다.

시민이 중심인 ‘행복 경산’을 만들겠다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기조를 담았다. 새 도시 브랜드는 마이 유니버스, 경산 문구와 함께 입체형 이미지를 도입했다. 위성이 아닌 스스로 빛

을 발하는 항성의 형태로 세상을 이끄는 젊고 활기찬 도시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얼굴이자 경쟁력”이라며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이미지상을 대변하고 우리시가 추구하는 비전을 담고자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 유니버스, 경산을 필두로 지방시대 높은 파고에도 곳곳하게 확장해 나갈 경산의 거침없는 행보를 기대해달라”고 했다. 조 시장은 새 도시 브랜드 공개 앞서 새롭게 만들어갈 경산시의 비전으로 ▲잘 사는 경산, 머무는 경산 ▲총횡무진, 탄탄대로 경산 ▲안전한 힘이 있는 경산 ▲함께 행복해지는 경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손덕호 기자

### 그래미 ‘여명1004’

#### 독보적 기술력... 숙취는 물론 건강까지 챙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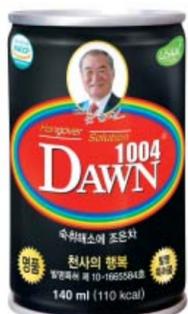
발명특허기업인 그래미가 올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숙취해소음료 부문에 선정됐다.

건강에 좋은 천연 식물성 원료와 끊임없는 제품 연구 개발(R&D)로 독보적인 숙취해소음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결과다. 1998년 출시된 여명808과 함께 거듭되는 연구로 매해 업그레이드된 여명1004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의사로 고치지 못한다’는 신념의 산물이다. 숙취는 물론 건강까지 챙겼다. 가족과 생계를 위해 술을 마셔야 하는 가장과 건강한 음주문화를 즐기고 싶은 애주가들의 필수품으로 꼽혀왔다. 26년 전 출시 당시 대

학생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전수하는 숙취해소 노하우가 됐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건강한 대학 생활과 브랜드 홍보를 위한 대학생 광고 공모전도 기획했다.

그래미 관계자는 “발명특허 기술과 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꾸준히 연구해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영빈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니세프도 인정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에 선정됐다.

진주시는 올해 보육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85억원 늘린 148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진주형 거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확대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 최초 남·여 쉼터 운영 등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및 확대를 아동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는 전국 최초 실시 보육시스템 ‘365일 24시간 보육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4개를 묶어 공동 보육하는 공유 어린이집 ‘구슬

### 진주시

모음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및 ‘장애 영유아 장난감·특수 교구 대여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자체 돌봄 관련 특수시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진주시는 아동의 놀이문화와 가족의 여가생활을 위한 2023년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하모 유아스포츠타운 운영’ 아이와 부모가 바라는 안심 돌봄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이런 정책을 발판으로 진주시는 지난해 7월 4일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에 선정됐다. 이선목 기자



#### ‘화성 테크노폴’ 조성, 명품 특례시 도약

경기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성 테크노폴’을 추진한다. 우수한 기술인력, 첨단기업 및 연구소, 양질의 정주여건 등을 두루 갖춘 첨단 산업도시를 뜻한다.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아 전기차 공장 등 첨단산업 앵커기업과 4500여 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다. 네덜란드의 원자 증착장비 기업 ASM은 화성 제2제조 연구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다. 또 동탄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등 도시 개발로 양질의 주거여건이 마련돼 있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난 3월 개통된 GTX-A는 향후 서해선, 신안산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

### 화성시

권 주요 일자리와의 연결이 강화되면 인재·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는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 흥익대 4차 산업 혁명캠퍼스 외에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첨단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첨단 기술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유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특례시를 넘어 세계 속의 첨단 산업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



#### 외국인 특화도시... 이민청 유치 정조준

경기 안산시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안산시의 강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정책 추진 역량이다.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인구 1위다. 안산시에는 3월 말 기준 전 세계 114개국에서 온 외국인 9만6895명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안산시는 외국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역량도 갖췄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다문화마을 특구를 조성했다. 외국인 인권 조례를 제정했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령평의회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안산시

창립도 안산시가 주도했다. 안산시는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다. 이민·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안산시가 세운 표준이 정부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견인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산시는 향후 이민청 유치를 전제로 외국인 특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한민국형 이민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전국 지자체로 전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민청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이민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 푸름웰니스 ‘제누’

#### 설탕 빼고 단백질 더한 ‘3세대 커피믹스’

푸름웰니스가 올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커피믹스 부문에 선정됐다. 커피믹스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까지 생각한 성과다. 이를 위해 푸름웰니스는 11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100여 번의 사전 테이스팅을 했다.

‘설탕은 빼고 단백질은 더하고’라는 슬로건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제누 스테비아 단백질 커피믹스는 푸름웰니스가 선보인 3세대 커피믹스다.

앞서 푸름웰니스는 설탕이 들어간 1세대 커피믹스와 설탕 대신 스테비아로 단맛을 낸 2세대 스테비아 커피믹

스를 공개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5차 생산량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것이다. 특히 푸름웰니스는 지난 4월 배우 유지태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중적인 인지도 확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사망수수를 발효한 천연 용매제로 안전하게 카페인을 제거한 제누 스테비아 단백질 커피믹스 디카페인과 기존 상품보다 원두 함량을 42% 높인 제누 스테비아 단백질 커피믹스 바리스타도 출시됐다. 민영빈 기자

